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55.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함

2014. 01. 19.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새해도 이 방송을 애청하시기 바라고 깨닫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6~12]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되 7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되 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 지난 시간에 6절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두 증인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성경의 말씀을 거절할 때 겪게 될 영적 상태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오늘은 7절부터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답: 예,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나 교회로 불리는 조직은 실제적인 상태 즉, 몸이 있고 조직이 있고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 자체가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육신이나 물질을 떠나서 따로 작용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현실적인 생활과 또 교회조직과 사업 그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에 처한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생활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교리와 신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을 피가 되게 한 것이 되지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로 불로 살라져서 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것인데 그것들이 바로 영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라는 것이 육신과 또 현실 생활과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예

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답: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요3:5,6을 읽으면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요3:5,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 성령으로 났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그냥 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롬8:8,9]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이 우리의 이 육신으로 되어 있는 몸을 떠난 어떤 다른 차원의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의 주장을 받는 사람이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곧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계11:6에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가 되고, 불에 소멸된다는 표현이 엘리야나 모세가 천연계의 현상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한 것만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영적 실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라디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애청자들께서 라디오 앞에서 이 강론을 듣는 것은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 된 사람은 생활 전체가 영의 일입니다. 당연히 영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영이 된 사람이 육의 일을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참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7절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답: 예, 7,8절을 같이 봐야 하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인 신구약성경 말씀이 1260년간 베옷을 입고 증거를 하는 기간이 끝날 무렵에 세상은 이 증언을 아주 싫어해서 두 증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동하는 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고 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는 무저갱의 사자가 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었지요. 당연히 루시 퍼이지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당연히 무저갱의 사자가 내어보내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두 증인 곧 성경말씀과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죽입니다.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요.

4.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뜻하며 그것이 두 증인인 성경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런 사건이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의식이나 사상적인 것인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답: 당연하지요. 무저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뜻하는 것인 줄은 벌써 이야기 한 것이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은 자들의 처소이니깐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히2:14) 그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짐승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이 성경을 죽이기 위하여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증거하는 그 기간이 마칠 때쯤에 어떤 나라에서 성경을 대적하고 파괴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찾아봐야 하겠지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11장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적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그렇게 하면 쉽지요. 제가 여러 번 말한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적, 정신적, 생각이나 관념의 사실로 말하면 아무 때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큰 성 거리에 버림을 당했다가 3일 반 후에 구름타고 승천한다고 했는데, 상징적 예언에서 날짜는 역사적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대를 관념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 현장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금까지 계시록을 설명해온 우리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입니다.

5. 예, 그러니까 확실히 역사적으로 일정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씀인데, 그런 사건이 역사에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답: 이 말씀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 곧 성경을 핍박하여 버린 장소를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큰 성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18장을 봅시다.

[계18:2]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큰 성이 바벨론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과 대조되는 것인데, 11:2에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데,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전서가 바벨론 거리에 방치될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찾아 확인했지요.(성경구절을 말씀하셨지, 찾아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찾아봅시다.

[벧전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

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 4:12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 있지요.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년 동안 변질 된 교회, 곧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고하니까 큰 성의 사자인 루시퍼가 괴롭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정죄하여 고향에서 추방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성경을 아주 없애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성경이 그리 흔하지 않았습디다. 인쇄술이 발명되기는 했지만 대량 출판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또 민중들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 계몽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계 인구의 20%정도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글에서 5세기경에 세계 문맹률이 95%라고 했습니다. 5세기면 600년대인데, 사실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반 민중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민중들에게 널리 보급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개혁자들이 변질된 교회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조직을 향해 계속해서 교리를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철학과 정적 욕심으로 변질시킨 사실을 지적하니 솔지요. 그래서 한 국가를 통하여 성경을 아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은 바벨론인데,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국가는 없었지요.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벨론이라는 은어(隱語)로 불리던 제국로마도 없어진 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8절은 계속해서 이곳은 영적으로 애굽, 또는 소돔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소돔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을 표상하고 애굽은 왕인 바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진리 성경말씀의 진리를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면서 그것이 바로 이 최악 세상이라는 것도 상징합니다. 지리적으로 예수님은 유대 땅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은 이 죄의 세상을 나타냅니다.

6. 예, 목사님, 그렇게 상황설명을 하면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시원하게 말씀하실 때가 되었는데요.

답: 내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까? 아무튼 1798년 1260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징적 예언으로 그 사건을 계시해주실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장 사건을 설명하면서 프랑스 혁명과도 관계가 있다고 했지요. 1260년 기간이 아직도 끝나기 10년 전인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이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세계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오랜 세월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겉으로 보기에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가난한 시민들의 소위 무신계급의 혁명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무신론 사상을 크게 진작 유포시켰고, 공산주의를 태동하게 했으며 그래서 소련, 동유럽, 중국 등의 수십억의 인구를 공산주의 무신론의 굴레에 가두어서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7. 프랑스 혁명으로 두 증인으로 상징된 성경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두 증인을 죽인다고 했는데, 성경을 폐기처분 했나요?

답: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배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죽임을 당하게 된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왕정이었잖아요.

프랑스 혁명 과정은요 이미 루이 14세 때부터 빈민과 평민 계층에 대한 압박이 일상화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왕실의 사치와 낭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를 더해 갔습니다. 게다가 미국 독립전쟁에 군사를 파견하는 무리한 군사 행동으로 국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774년에 국가 재정의 33% 이상이 군비 증강을 위해 소비되었고, 약 3%가 부채에 따른 이자 지불에, 10%는 왕실의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가축의 전염병이 극성을 부려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 나갔고, 프랑스의 농촌 경제는 완전히 몰락하여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주인 귀족들은 기본 세금을 면제받았고, 교회는 단지 기부금만을 납부했는데 그것도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내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수입의 70% 이상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실은 재정이 모자라 궁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1774~1793)는 175년 만에 처음으로 1789년 5월 5일에 파리 근교의 베르사유에서 삼부회가 열렸습니다. 삼부회를 소집하여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는데, 삼부회의는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성직자는 제1신분, 귀족은 제2신분, 평민은 제3신분이었는데, 물론 권리는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있었지요. 당시 성직자와 귀족은 전 국민의 2%였고 98%가 평민이었는데 재정은 성직자와 귀족이 거의 다 차지하고 평민은 지독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삼부회의를 소집하고 성직자와 귀족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결의를 할 리가 없지요. 제1, 2신분은 신분별로 나누어 토의와 표결을 하자고 했고, 제3신분의 대표는 모든 대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한 표씩 표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왕과 제1, 2신분은 제3신분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평민들은 이 불평등한 회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국왕과 귀족들이 거절하자, 결국 1789년 6월에 제3신분의 대표는 삼부회에서 분리, 국민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은 테니스코트에 모여 새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는 테니스코트의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릴 때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파리 주변에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국왕의 군대를 막을 무기를 바스티유감옥에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므로 프랑스혁명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파리 평민 지도자들은 시 혁명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미국 독립 전쟁에 참전했던 라파예트(1757~1834)가 이끄는 국민군이 창설되고, 제3신분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국민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인권 선언이 공포되고 봉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혁명은 내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고, 1791년에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1755~1793)가 프랑스를 탈출하려다 체포되면서 혁명의 영향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대략입니다.

8.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성경이 죽임을 당하는 사실은 없는데요, 그렇게 자유 평등 박애를 부르짖었는데, 그것은 성경의 사상과 같은데 어찌 성경을 죽입니까?

답: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런데 혁명의 배경에 성직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당시 프랑스의 제1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면제받았고 부하게 살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지주가 되어서 농민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군들에게 성직자는 제1 처리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처형된 성직자만도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한 원한이 하늘까지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습격했고 새로운 달력은 만들어서 종교 축제일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는 진저리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달력을 고쳐 한 주간이 10일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날을 철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일제도를 바꾼 처음 시도였습니다. 안식일을 없애려는 사단의 술책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1793년 11월 10일에는 그래도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미인 여자 배우를 선택하여 노트담 사원에 모셔놓고 이성의 여신이라고 하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의회는 1793년 11월 26일에 성경을 금서로 결의하고 모든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공식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모든 교회 문은 굳게 철폐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아서 파리 광장에서 성경 사형식을 하고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때 시민들은 대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11: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참으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지요. 그러니 이렇게 되자 프랑스는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범죄가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공포분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회가 생각을 달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97년 7월 17일에 다시 주일 제도를 7일로 환원하고 성경 금지령과 종교행사 금지령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793년 11월 26일부터 1797년 7월 17일까지 만 3년 반 동안 성경이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계11: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에 계속해야 되겠지요.

9. 예, 그렇군요. 기도하시고 오늘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참으로 주신 예언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의 손에 펴 놓인 책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과 함께 계시록도 알게 하셔서 예언이 역사에 성취된 사실을 확인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언의 지도를 받아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대로 충성하는 하루를 평안하게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